한라시론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농민수당'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

농촌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농촌이란 전봇대 숫자보다 주민수가 적은 곳'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에 비해 입지가 매우 좁아졌고, 최근 농민신문은 "농촌은 기계화와 젊은 귀농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촌을 바꾸는 구심력으로, 농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라고 했지만, 현재 고령의 농업인들은 힘들다. 제주는 전국평균과 많이 다르지만 농촌마을에 원주민이 계속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전 세계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2008년에 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기에 앞서 한국카톨릭농민회 등 3개 단체는 농민권리선언에 찬성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기권 표를 던졌다고 한다. 전문 28조로 돼있는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제2조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즉각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본 선언문의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 되도록 돼 있으나 표결에 기권한 정부는 농업,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조사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은 94.3%가 도시민은 8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도 농업인은 88.2%, 도시민은 72.2%가 많다고 응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세금 부담 찬성비율은 53%에 그쳤다.

농업·농촌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따뜻한 삶의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 이제 실행단계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도 농민회가 중심이 돼 설명회와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농업경영체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반기 분 3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했다고 한다. 해남군은 금년 재정자립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제주도는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사설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총력 기울여야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측이 그동안 밀렸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013㎡에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313실)과 텔라소리조트(220실) 등을 추진했으나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총 1조 130억원 투자 계획 중 현재까지 7000억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최근 녹지그룹이 이달 31일까지 공사비 미지급금 680억원 가량을 시공사 3곳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녹지그룹은 지난 6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1차분으로 미지급 공사비 297억원을 3개 시공사에 지급했습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공사비 지급 계획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다행입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당초 계획한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4월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원부담이 만만찮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JDC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란만 부추기는 설익은 교통정책 안된다

제주자치도가 설익은 각종 교통정책을 내놓으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에 담긴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던 차량총량제(세대당 평균 2대 미만)와 전세버스총량제(2023년 1600대)도 검토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 과제의 추진보류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는 특정구간이나 지역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해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교통수요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차고지 증명제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도심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엇박자정책의 표본입니다.

자동차총량제와 전세버스 총량제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만 부를 뿐입니다. 특히 총량제 실시에 따른 자동차 등록 비용의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도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대당 2대로 차량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은 실제 차량 감소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제주자치도가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도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철회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주도의 행정은 억제보단 조장행정이 우선입니다.

편집국 25시

조국과 원희룡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내달 2~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7일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30여 곳에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더욱 촉각이 모아진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경우의 후폭풍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내년 총선에서 촛불 민심이 가짜 촛불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무소속이지만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날 보수 진영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장한 얘기다.

원 지사가 그동안의 암중모색 행보와 달리 보수진영이 주최한 토론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란히 참석한 것도 이례적인데, 청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여느 발표자들 보다 선명했고, 자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다. '최고집' 저리가라다. 외통수 고집불통의 오만이 권력의 끝판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던졌다. 제주도지사로서 향후 중앙 절충을 고려할 때 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의 발언이었다. 보수 진영이 주최한 토론회니만큼 참석자들은 원 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원 지사가 "민심 편에 서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유승민, 안철수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얘기했을 때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한다면 원 지사는 당장 무소속이라는 방어막을 걷어내고, 보수 대표주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 메신저 역할을 자임할 지 모른다. 서울대 법학과 동기생 조 후보자의 거취, 원 지사의 거취가 주목되는 정국이다.

뉴스-in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원 지사, 조국 후보 사퇴 권고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동시대 386(세대를)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

원 지사는 27일 오후 게시한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TV'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일침.

원 지사는 앞서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며 온오프라인으로 동분서주. 조상윤기자

"지역경제 불안심리 차단"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8일 도내 주요 업계 및 유관기관 인사를 초청해 3분기 제주지역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광·건설동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시장 여건 악화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

특히 한·일 외교갈등으로 인한 관광·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히 협력하며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 백금탁기자

중복 증인 채택여부 신경전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 중복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져 눈길.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보관 변호인 측에서 중복 증인 2명과 새 증인 2명, 새로운 증거 신청을 검찰에 요청.

이에 반대 변호인측은 "중복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 들여 오는 10월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집중 심리키로 결정. 김현석기자

부 고

김종철(자영업) 아버지 **김해김공 동준(前 북제주군 상이군경회 회장 · 향년 88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7일 17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29일(목)
▶발인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한림정낭장례식장 2층 특실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희춘
아들 김종철 며느리 강경숙
종훈 오영지
종혁 고경희
딸 김순희 사위 박영수
정희
윤희 김동현

※ 연락처 : 김종철 010-6612-7204
김종훈 010-3694-6578
김종혁 010-3929-0088

부 고

김순호(개인사업) 아버지 **광산김공 태하(前 농협은행 서문지점장 · 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8일 8시 2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30일(금)
▶발인일시: 2019년 8월 31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행숙
아들 김순호
순주 며느리 한경임
순기 오명숙
순영 고민경
손자 김한얼 손녀 김다예
한슬 김다민
한민
동현
지훈

※ 연락처 : 김순호 010-6284-6383
김순주 010-2691-7306
김순기 010-7362-4450
김순영 010-3372-0591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 고

이동진(처브라이프) 아버지 **전주이공 상형(삼성자판기 제주동구전자제주판매(주)·향년 65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7일 10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29일(목)
▶발인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8시 2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홍복희
아 들 이동진
이동훈
며느리 주윤정
임혜주
딸 이지연

※ 연락처 : 이동진 010-8917-8757
이동훈 010-2795-7777
부민장례식장 742-5000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가족묘지용
토지분양
■ 서귀포시 상예동 도로접 자연녹지
■ 평장, 자연장 (99㎡까지) 허가지역
■ 가격 절충
☎ 010-2272-1550
010-2690-9874